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 송 | 시편 43(42),1-2 참조

하느님, 제 권리를 찾아 주소서. 불충한 백성에게 맞서, 제 소송을 이끌어 주소서. 거짓되고 불의한 자에게서, 저를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의 힘이시옵니다.

제1독서 | 예제 37,12ㄹ-14

화답 송 | 시편 130(129),1-2,3-4,5와 6ㄴㄷ-7,7ㄴㄷ-8(◎ 7ㄴㄷ)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

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제2독서 | 로마 8,8-11

복음환호송 | 요한 11,25.26 참조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

복 음 | 요한 11,1-45<또는 11,3-7.17.20-27.33ㄴ-45>

영성체송 | 요한 11,26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손경락 사도요한 신부 | 국내수학

“부활이요 생명”(요한 11,25)

요한 복음의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겪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시기 직전, 예루살렘 인근 베타니아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복음의 많은 등장인물들은 죽음과 관련되어 각각 다른 질문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죽음을 겪은 라자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 유다 지역에 들어온 제자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빠의 죽음을 막으셨을 것이라 믿는 마르타와 마리아, 치유는 가능하면서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느냐는 주변 사람들까지. 그들의 질문에 논리적인 정답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이 이 죽음의 문제를 두고 나뉘는 답을 주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음을 다시없는 인간의 한계로 여기면서 ‘죽음 앞에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답으로 삼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죽음이 없음’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은 놀랍게 느껴집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이, 죽음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실제 부활하심으로 이것이 가능함을 보이십니다. 결국, 마지막 원수인 죽음은 정하신 때에 극복되겠지만,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넘어 하느님의 생명으로 마음을 정향하고

관심을 쏟게 됩니다. 부활의 희망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다르게 이해하게 만듭니다. 부활의 희망은 그 희망을 주신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게 하며, 죽음을 지나쳐 영원한 행복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곧잘 고통과 죽음에 압도되어 그것들이 나타나면 도저히 거기서 눈을 뗄 수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은 설명되지 않는 고통으로 점철된 것 같고, 하느님은 가끔씩은 도와주셔도 정작 필요할 때는 나타나지 않으시는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강조점은 보통 십자가의 고통에 귀착됩니다. 하느님은 그저 십자가를 지도록 요구하시는 분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너머에 있는 부활과 생명을 건너다 보게 해 주는 도구입니다. 십자가를 겪는 이유는 그것이 주어진 십자가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부활과 생명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으니 악으로 갇혀 버터보겠다는 절망스러운 상황의 표현이 아니라, 십자가가 가리키는 부활과 생명으로 내 마음을 붙들어 매겠다는 희망스러운 결단의 표명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과 생명에 대한 희망 가운데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 자체를 사랑하며 그분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초대받았습니다. 그 초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도록 주어진 선물의 시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요한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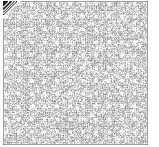


벚꽃이 만개한 봄날. 성큼 다가온 봄을 즐기려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 길에 몸이 불편한 소녀가 휠체어를 타고 봄나들이에 나섰습니다. 그 소녀에게 봄은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늦은 오후 햇살이 주님의 손길처럼 소녀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 소녀에게 다가온 봄이 희망의 날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김대환 안드레아 | 가톨릭사진가회



안현모 리디아 | 방송인



감사로 응하는 초대

저는 늘 제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교만하게 들릴까 봐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땅의 모든 생명과 마찬가지로, 저의 매일매일에는 하느님의 은총이 닿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기도 중에 '하느님, 감사합니다'를 넘어, '하느님, 갚겠습니다'를 되뇌는 정도로 하느님께 빚진 마음이 큼니다. 그건 다름 아닌,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양 같은 저를 그동안 몇 번씩이나 예쁜 종소리로 불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부터가 순전히 하느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당시엔 저희 집 다섯 식구 중 아무도 천주교 신자가 없었는데도 저 혼자 똥판지 같이 제 발로 걸어가 성당 문을 두드렸으니까요. 사실 그 때만 해도, 저는 어디 좋은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하얀 미사포는 마치 새로 받은 품 나는 교복 같았고, 교리 수업이 끝나고 신부님과 다 같이 가진 뒤풀이 자리는 마치 TV에서 보던 연예인이랑 친해진 것처럼 신기했습니다.

그러다 한참 세월이 흘러 직장인이 되었고, 바쁘다는 핑계로 마치 그 학교를 '졸업'이라도 한 듯 길 잃은 양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저를 불러들이셨습니다. 특단의 조치로 저에게 숙제를 내 주신 겁니다. 천주교 잡지 <가톨릭 비타콘>에 글을 연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마치 얼떨결에 무대 뒤 백스테이지에 들어간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맺은 수많은 형제자매와의 고마운 인연 덕에 벌써 5년이 되도록 나오질 않고 있지요.

이후에도 하느님은 저에게 여러 번 뜻밖의 초대장을 보내셨습니다. 한 번은, 멀리 이탈리아까지 가서 그것이 하느님의 초대였음을 알고 눈물을 펴펴 쏟은 적도 있었습니다. 아시시의 성글라라 대성당에서 혼자 눈이 툭툭 붓도록 울

었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전북 익산의 봉쇄 수녀원에서 만났던 성녀 글라라가, 당신의 고향 묘소까지 찾아온 저를 기다렸다는 듯 온몸으로 꼭 안아주었거든요. 그런 제가 어느덧 또 다른 어린양의 품을 만나, 김치찌개 한 그릇 앞에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느님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으니, 하느님이 저에게 이제는 어디든 손잡고 같이 오라며 든든한 짝꿍까지 정해주신 셈입니다.

그러다 가장 최근에 하느님께서 저를 호출하신 곳은 바로 이곳, 제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서울주보였습니다. 저의 부족한 신앙 고백을 수많은 신자들과 나눌 수 있는 너무나도 벅차고 영광스러운 특급 초대였지요. 물론 이번에도 저를 뻔한 곳으로 부르진 않으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저에게 배정된 3월이 전면적 미사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맞물렸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마지막 글을 마무리하며 보니, 덕분에 그동안 저의 신앙을 더욱 깊이 돌아보며 하느님께 더욱 바짝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선에서 애쓰시는 의료진과 정부 관계자분들을 비롯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평범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모든 영웅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기도 안에 훨씬 더 많은 감사를 담겠습니다.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요한 13:34

김세진 에스테르
인천교구 중2동성당

주교회의의 2020년 춘계 정기총회 결과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과 천주교인들을 위한 담화문을 '한국 천주교 주교단' 명의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전국 교구의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미사 재개 시기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신자들의 영신적 유익을 위하여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미사를 재개할 필요가 있지만, 정부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방역 관리 지침을 존중하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일이 2020년 4월 6일(월)로 연기된 점을 고려하여, 지역 상황에 맞추어 교구장의 재량의 따라 구체적인 미사 재개 날짜를 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바이러스 확산의 추이에 따라 미사 재개에 필요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3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반포 5주년을 기념하는 「찬미받으소서」주간(2020년 5월 16-24일)을 맞이하여, 2020년 5월 8일(금)에 「한국 천주교 주교단」명의로 기후위기 성명서를 발표하고, 5월 16일(토)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회칙 「찬미받으소서」 5주년 기념 미사를 봉헌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주교회의의 생태환경위원회(위원장 강우일 주교)는 「찬미받으소서」주간 강론 자료 및 주간 요일별 기도 자료를 배포하고, 환경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글과 연설문을 모은 Nostra Madre Terra: Una lettura Cristiana della sfida dell'ambiente(우리 어머니인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고찰)를 번역 출간할 계획이다.
- 4 기존의 「사회복지·사회사목국장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사회복지 업무가 주교회의의 사회복지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사회복지·사회사목국장회의(2020년 1월 14일)에서는, 회의 명칭을 「사회사목국장회의」로 변경하고, 각 교구에서 사회사목(교정사목, 이주민사목, 경찰사목, 환경사목 등)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대표 사제를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회의 명칭을 「사회사목국장회의」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 5 주교회의의 사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위원장 유홍식 주교)의 제안에 따라,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이 되는 2021년을 한국 천주교회 차원의

희년으로 선포하기로 하고, 희년 기간은 2020년 11월 29일(대림 제주일) - 2021년 11월 27일(대림 제주일 전 날)로 정하였다. 희년 기간에 전대사를 받기 위하여 교황청 내사원에 전대사 수여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 6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FABC) 설립 50주년을 맞아 2020년 11월 3일(화) - 20일(금) 태국 방콕 대교구에서 개최되는 FABC 총회에 참석할 한국 대표로 7명의 주교를 선출하였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0년 11월28일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과 미사 봉헌에 대한 주교회의의 2019년 추계 정기총회 결정 2019.10.17).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35년 3월30일 이종순 요셉 신부(46세)
- 1982년 4월3일 양기섭 베드로 신부(77세)

가톨릭평화방송 TV 매일미사



신자와 함께하는 미사가 중단된 지금 미사를 방송으로 함께 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청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방송시간>

TV	: 월-토 6시, 9시, 12시, 18시, 21시20분
	: 주 일 6시, 9시, 12시, 18시, 21시
라디오	: 매 일 5시, 18시5분
유튜브	: <TV매일미사> 검색

매일 5시 이후 cpbc 홈페이지·모바일앱·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미사 재개시 준비사항

- (1) 성당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손세정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역학조사를 위해 미사참석 명단을 작성합니다.
- (2) 미사 중에도 신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성당 안에서도 거리를 두고 앉으며 악수 등 신체적 접촉을 피합니다.
- (3) 미사 중 성체를 나누어주기 전 주례사제가 제대에서 “그리스도의 몸” 하면 신자들이 함께 “아멘”이라고 응답하고 침묵 중에 성체분배를 합니다.
- (4) 성가책이나 물품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5) 가급적 성가를 부르지 않고 미사를 봉헌합니다.
- (6) 코로나19 감염증 증상이 있는 신자나,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환자, 초·중·고등학생은 별도 공지 때까지 집에서 대송으로 주일 의무를 대신합니다.
- (7) 금년 성지주일에는 성지가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8) 부활전 판공성사는 현상황에서 어려우므로 ‘일괄고백과 일괄사죄’를 위해 교구에서 참고자료를 준비하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